

‘먹방’의 몰락?

대표 먹방 ‘맛있는 녀석’ 인기 폭
‘외나무식탁’ ‘출서는 식당’도 고전
하재근 평론가 “변주 없는 소재탕”
일부선 “코로나 시국에 먹방 거슬러”

한동안 방송가를 주름잡았던 ‘먹방’(먹는 방송)프로그램이 좀처럼 힘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연예인들이 맛집을 찾아가 음식을 먹는 다양한 포맷의 예능프로그램이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난히 많은 프로그램이 쏟아진 지난해와 달리, 최근 스포츠 소재에 시청자 관심이 쏠리면서 이제 절 지난 아이탬으로까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별다른 차별화 전략 없이 소재의 힘에만 기대던 안이함을 지적하는 시각도 나온다.

● 잘 나가던 ‘맛있는 녀석’도 흔들

iHQ 예능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여름 연출자 이영식 PD와 멤버 김준현이 하차한 이후 12월 개그맨 홍윤화·김태원을 영입한 프로그램은 이전과 같은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이후 7년간 방송하며 탄탄한 팬덤을 보유해왔지만, 시청자 사이에서는 “개성이 반감됐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방송인 강호동·김준현의 JTBC ‘외나무식탁’, 박나래·유튜버 임정은·김민이



‘맛있는 녀석들’(위), ‘출서는 식당’ 등 먹방(먹는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놓치며 시청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사진제공 | iHQ·tvN

진행하는 tvN ‘출서는 식당’ 등도 마찬가지다. 각각 요리 고수들의 대결과 SNS 화제의 맛집 찾기 콘셉트를 앞세웠지만, 시청률은 2%대(닐슨코리아)에 머물고 있다. 방송가 톱스타들로 출연 라인

업을 채운 것에 비해 별다른 화제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나마 E채널 ‘도요일은 밥이 좋아’가 체면치레 중이다. 지난해 11월 선보여 이달 26일 시즌2를 방송한다. 유튜

버 허박과 농구스타 현주엽의 조합이 시청자 관심을 받은 덕분이다. 그러나 출연자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콘셉트 자체에서 차별성을 찾지 못하겠다는 시선도 받고 있다.

● “코로나19 분위기와도 안 맞아”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시청률 경쟁에 놓인 제작진이 프로그램만의 개성을 발휘하기보다 소재의 힘에 묻어가고 해 식상하다는 반응을 얻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식욕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출발하는 먹방 소재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대신 소재를 다채롭게 변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먹방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와 무관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서울 도봉구에 사는 회사원 조민우(32) 씨는 “최근 먹방프로그램에서 여러 출연자가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코로나19 감염 걱정부터 든다”면서 “제작진이 방역에 힘쓰며 활영하겠지만, 시청자 눈에는 아슬아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출서는 식당’도 유명 식당 앞에서 입장 대기줄에 빠빠기 선 고객들의 모습을 방영해 일부 시청자로부터 “코로나19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날선 비판을 받았다.

유재희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채널A 여행다큐 ‘고두심이...’ 3월 첫방



고두심

배우 고두심이 데뷔 50년 만에 처음으로 다큐멘터리 진행을 맡는다. 채널A와 LG헬로비전 공동 제작하는 여행 다큐멘터리 ‘고두심이 좋아서’가 3월 중 첫 방송된다. 고두심이 매회 새롭게 여행 메이트로 합류하는 게스트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다양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고두심은 “연기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나 역시 여행을 자주 할 수 없었기에 설레고 들뜬 마음이다.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를 꾸리느라 여행 한번 편하게 못 떠난 엄마들에게 방송을 통해 잠깐이나마 대리 힐링의 시간을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겜’ 주역들 SAG 시상식 참석차 출국



‘오징어게임’ 주역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주역들이 제28회 미국 배우조합상(SAG) 시상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24일 넷플릭스는 “이정재, 정호연, 박해수, 김주령, 아누팜 트리파티, 황동혁 감독이 28일(한국시간) 열리는 SAG 시상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국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은 오영수를 비롯해 위하준, 허성태는 다른 스케줄이 겹쳐 불참한다. ‘오징어게임’은 최고상인 TV 드라마 시리즈 부문 앙상블상을 비롯해 스탠트 앙상블상, 남우주연상(이정재), 여우주연상(정호연) 후보에 올랐다.

유네스코 유산 ‘제주해녀문화’ 영상 공개



서경덕 교수(왼쪽)·가수 윤도현

가수 윤도현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24일 공개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공동 제작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공개된 영상은 오랜 시간 동안 제주 해녀들에게 전승되어 온 채취 활동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를 상세히 소개한다. 한국에 내레이션을 맡은 윤도현은 “평소 제주의 환경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제주해녀에 관한 내레이션을 맡게 돼 기쁘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송은이·장동민·신혜선·이준영·박서준 확진



송은이

코미디언 송은이·배우 신혜선·이준영·박서준 등 스타들이 연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2차 3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나 돌파감염 됐으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이와 장동민은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 녹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신혜선·이준영 주연의 영화 ‘용감한 시민’은 촬영을 중단했고 박서준은 예정됐던 영화 ‘드림’ 해외 촬영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프로미스나인 백지현, 불안증세로 활동 중단



백지현

그들 프로미스나인 멤버 백지현이 심리적 불안 증세로 인해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 소속사 플래디스엔터테인먼트는 24일 “본인은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당분간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미스나인은 지난달 발매한 네 번째 미니앨범 ‘미드나이트 게스트’가 초동 판매량 10만4400여 장을 기록하며 걸그룹 사상 초동 10만 장을 넘어서 12번째 팀이 됐다. 당분간 백지현을 제외한 8인조로 활동을 이어간다.

편집 | 안도영·유진환 기자

‘주술회전0’ 돌풍...일본 애니의 힘

개봉 1주일 만에 박스오피스 1위
1020 신세대 덕후들 폭발적 반응
피규어 등 팬덤 자극용 굿즈 한몫

지난해에는 ‘귀멸의 칼날’, 올해는 ‘주술회전0’.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잔뜩 움츠러든 극장에서 잇달아 반전 흥행을 거두고 있다. 10·20대 젊은 관객의 관심에 힘입은 성격으로 분석된다.

24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시장에 따르면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주술회전0’(주술회전0)가 할리우드 스타 톰 홀랜드 주연의 블록버스터 ‘언차티드’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17일 개봉해 줄곧 2위 자리에 머물렀던 영화는 23일 ‘언차티드’

의 관객 2만6825명을 간발의 차로 넘어선 2만6934명을 동원, 순위를 역전했다.

특히 ‘언차티드’의 전국 1087개보다 적은 814개 스크린에서 상영됐다는 점에서 기업을 토한다. 또 공포영화 ‘안테벨룸’, 아카데미상 후보작 ‘나이트메어 앨리’, 한국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등 신작에도 앞섰다.

앞서 지난해에는 또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 편’(귀멸의 칼날)이 국내 극장에서 조용한 돌풍을 일으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증가세로 극장 관객의 발걸음이 공포 열어 붙었던 지난해 1월 말 개봉해 누적 215만 1800여 명을 불러 모아 2021년 전체 흥행 순위 7위에 올랐다. 애니메이션 명가 픽사의 ‘소울’(204만 명), 마블 영화 ‘상치와 텐링즈의 전설’(173만 명), 흥행 시리즈 ‘007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주술회전0’이 10·20 관객의 관심에 힘입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언차티드’를 꺾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사진은 ‘극장판 주술회전0’ 공식 포스터. 사진제공 | 대원미디어

노 타임 투 다이’(122만 명) 등 대형 화제작을 모두 제친 성과였다.

이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흥행 일등공신은 ‘1020 팬덤’이 꼽힌다. 극장판

개봉에 앞서 TV와 OTT나 출판 만화로 이미 원작을 보며 팬이 된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일명 ‘덕후’(마니아 수준을 넘어선 열렬한 팬. 일본어 ‘오타쿠’의 발음을 변형한 신조어)가 탄탄하게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CJ CGV 황재현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원작에 대한 팬들의 애정이 극장판을 향한 기대감으로 이어졌다”면서 “실관객 평점인 CGV골드에그지수도 ‘귀멸의 칼날’ 97%, ‘주술회전0’ 94% 등으로 매우 높다. 특히 10·20대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주술회전0’의 경우 67.7%가 10·20대”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재관람률도 높아서 각 극장은 ‘팬심’을 자극하기 위해 각 작품의 포스터, 엽서, 캘린더, 피규어 등 관련 굿즈도 끊임 없이 내놓고 있다. 이를 얻기 위해 영화를 관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주술회전0’과 ‘귀멸의 칼날’의 재관람을 뜻하는 ‘N차 관람’과 다양한 굿즈 인종샷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올해도 넷플릭스는 No!”...콧대 높은 칸, 왜?

“영화는 극장예술” OTT에 빗장
대중성보다는 예술성 더 중시
OTT 반기는 아카데미와 대조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넷플릭스가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오리지널 영화를 출품하지 않을 전망이다. 넷플릭스 영화를 무려 27개 부문에 후보로 올린 미국 아카데미상과 뚜렷이 대비된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와 가장 대중적인 영화상이라는 영화 축제를 대표하는 두 무대가 OTT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드러낸 셈이다.

● 칸 vs 넷플릭스, 입장차 좁히지 못하는 이유

24일 미국 영화전문지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5월 17일 개막하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를 상영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 영화가 칸에서 관객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017년 칸 국제영화제는 넷플릭스가 투자·제작한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경쟁 부문에 초청했다. 하지만 “영화제 상영작은 극장 상영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프랑스극장협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는 극장이 아닌 OTT 플랫폼을 통해 선보이는 작품을 ‘영화’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에 관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결국 칸은 이듬해부터 OTT 영화를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쟁부문이 아닌 다른 섹션 상영은 가능하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이미 자존심을 구긴 넷플릭스는 작품을 보내지 않았다.

일찌감치 OTT에 문을 연 베니스, 베를린, 부산 등 국내외의 유수의 국제영화제와



‘옥자’의 한 장면

달리 칸이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영화를 철저히 극장 예술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 칸 vs 아카데미, 영화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영화가 역사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극장을 거쳐야 한다”는 티에리 프레모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말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칸 국제영화제가 대중성보다 예술성을 강조하며 소수를 위한 엘리트주의 무대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아왔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